전법 일기

출가, 진정한 행복 위한 길 함께 걸어가길 발원합니다

나는 출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대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왕 불교를 만났다면 재가의 신행생활에 만족하기보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를 권하곤 한다.

교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봉녕사 여성출가학교'는 사실 작년 여름 수계의 조건을 대폭 낮추는 가수계 제도의 신설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계기로 기획되었다. 팔상성도 가운데 '유성출가'는 싯디르타가 고귀한 신분과 권력을 보호하는 '성곽'을 뛰어 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위대한 포기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위대한 깨달음 또한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미나 참석 당시 출가자 급감의 심각한 상황 속에 출가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모색되는 다양한 방안을 보면서 종단의 깊은 고민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근원적으로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았다. 결론은 먼저 출가한 우리가 청정과 화합이 구현되는 모범적인 승가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한국불교의 청정 승가에 들어와 직접 체험하게 한다면 출가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스스로 출가를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리만큼 즉흥적인 계획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불사이고, 일단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력한 확신이 들었다.

이후 여성출가학교의 도감 소임을 맡아 소임자스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홍보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그 자체로 수행이고 보람이었으며, 다시한번 발심하는 귀한 시간이었 다. 1기 참가자 중 1명은 정식 행자 기간을 거쳐 다가올 봄에 사미니 수계를 받게 되고 그 외의 참가자들도 언젠가 발아할 출가의 인을 심었으니 소구하던 바의 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출가한 귀한 초심자들이 승가에 잘 적응하고 4년 동안 스님으로서 위의를 갖추고 교리적 체계를 세워 한국불교를 지탱할 여법한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나의 본래의 소임과 맞물려 출가 장려에 대한 나의 원력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얼마 전 2급 승가고시 품서식에서 고시위원장스님께서는 법납이 20년이 넘었으니 이제 선배로써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수행자가 되어주길 당부하셨다. 그동안 선배스님들의 훌륭하신 수행 여정을 본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의 자세라고 생각해 온 나였기에 이제는 내가 선배가 되어 후학들을 이끌어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새삼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 보다 내게 원래 주어졌던 봉녕사승가대학의 학감과 여성출가학교의 도감이라는 소임을 더욱 능동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최선의 전법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도연 스님
봉녕사승가대학 학감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⑪ 마음 밖에서 찾지 않기

나만의 '영점'을 찾아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머리에 커다란 헤어롤을 걸고 길을 걷는다.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주하는 풍경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다. 젊은 친구들이 모임이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자기가 먹지 않은 안줏값은 빼고 정산해달라 한다는 기사를 읽는다. 모든 것이 N분의 1이 가능한 시대다. 애매함과 모호함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아파트 공터 수거함에 음식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중년의 아저씨가 주차장 도로 턱에 앉아 유튜브를 본다. 나오는 음성이 이상해 의아해하다가 그것이 빠른 배속임을 나중에야 깨닫는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전체를 감상하지 않고 요약본으로 대강의 스토리만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핵심만 알면 그만인 것이다.

그림 작품을 몇 마디 말로 듣고, 음악을 몇 마디 말로 감상하는 시대가 왔다. 문자 답변도 거두절미하게 '넹', 한 마디면 끝이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영양소가 농축된 알약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음식의 맛은 책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으로 가늠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야말로 '극효율'의 시대다.

장자에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이 가는 길만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땅을 다 덜어낸다면, 결국 무서워서 한 치 앞도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이다. 공기나 물처럼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실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다.

시행착오 끝에 렌즈 초점 잡듯이
방황과 후회는 시간낭비가 아니다
극효율 놀음, 모두를 패배자 만들어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듣는다. 이 정도 교육여행 경비면 자기들 몇몇이서 체험학습을 쓰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한다. 교복도 편한 후드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극효율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이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그러나 공기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다 휘발해 버린 생각이다. 공유된 경험과 공유된 추억 없이 어떻게 공동체를 말할 수 있을까. 극효율 앞에선 다양성 속에서 차별하지 않고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격식과 품위도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늘 간만큼 되돌아와야 내 땅이 된다고 말한다. 멀리 가기만 했지 간만큼 되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음미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남을 이기는 경쟁의 노력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로 경쟁력을 만들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매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소명 같은 '나만의 영점'을 찾아야 한다.

무턱대고 많이 돌린다고 해서 렌즈의 초점은 맞춰지지 않는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렌즈의 초점을 잡을 수 있듯이 나의 방황과 후회는 결코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능력주의와 최적화는 경쟁을 당연시하고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극효율의 허깨비 놀음이 바로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율, 우울증 증가로 출렁이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뿐이다.

다이어트처럼 평생 좋은 방법만 찾아다니다 정작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효율성의 역설이다. 나만의 영점을 믿을 때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쉴 수 있다. 나의 영점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선학원 스님들 이중고 외면 말아야

12월 10일 '(재)선학원 소속 분원 가등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도제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선학원 소속 사찰 스님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제한 해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계종이 2014년 제정한 '법인법' 이후, 갈등이 1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선학원 이사회는 탈종단 수순을 밟았고 조계종도 선학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며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이어갔다.

이러는 사이,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은 조계종과 선학원의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수혜는 물론 교육과 수계 등 각종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며 선학원으로부터는 임명 및 사찰 재산권을 볼모로 잡혔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 속에서 그대로 노출된 스님들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강요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학원 문제를 다뤘던 조계종 내 기구 활동도 미진하기만 하다. 물론 종단 차원에서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조계종으로 출가해 승적을 가지고 있는 한, 종단은 스님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종단의 권리 제한 해제 조치는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들 모두에게 시행되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해제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도제들에 대한 교육과 수계, 장학제도에 대한 권리제한만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계종은 종지와 종맥, 소의경전이라는 형식을 갖춘 종단이며 선학원은 조계종 스님들에 의해 결성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불교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혜로 선학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것이 조계종 정체성을 회복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병원비에 가족 생계까지,
무너진 가장의 눈물

네팔 이주민 노동자 구룽 옴 바하두르씨
아킬레스건 파열…수술비만 1000여 만원
재활도 포기…공장 폐업에 기숙사 문닫아
네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